儀軌圖의 繪畫史的 特徵과 그에 나타난 宮中服飾

劉頌玉

目 次

Ⅰ. 序 論
Ⅱ. 朝鮮時代 儀軌圖의 繪畵 內容과 特徵
1. 儀軌圖 發達의 繪畵史的 背景
2. 嘉禮都監儀軌圖의 內容과 特徵
1) 前半期 嘉禮都監儀軌班次圖의 內容과 特徵
2) 後半期 嘉禮都監儀軌班次圖의 內容
3. 整理儀軌圖의 內容과 特徵
Ⅲ. 朝鮮時代 儀軌圖에 나타난 宮中服飾의 構造와 特徵 分析
1. 儀軌圖에 나타난 宮中服飾의 二重性
2. 儀軌圖에 나타난 宮中服飾의 特徵과 貌變 分析
1) 嘉禮都監儀軌圖에 나타난 男子服飾의 特徵과 變貌 分析
2) 嘉禮都監儀軌圖에 나타난 女子服飾의 特徵과 變貌 分析
3) 整理儀軌에 나타난 文武百官服의 特徵 分析
Ⅳ. 結 論

Ⅰ. 序 論

儀軌圖는 儀軌의 기록과 함께 보관되어 있어 그 製作年代와 그림을 그린 畵員의 이름까지 확실히 알 수 있어서 朝鮮時代의 繪畵史料로서는 물론 服飾史料로서의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다.

儀軌는 왕과 왕족, 신하들에 의하여 國家的인 行事로 행해지는 宗廟, 社稷, 嘉禮, 國葬, 祔廟, 殯殿, 葬胎, 山陵, 廟號, 御眞移模, 影幀模寫, 進宴, 進饌, 實錄, 整理 등 諸般 行事를 치르면서 그 상세한 내용을 座目에 따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宮中의 行事는 그 節次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都監廳을 설치하여 行事의 擧行을 주관하며, 행사가 끝난 후에는 儀軌廳을 두어 그 행사에 관한 내용을 모두 기록하는데 여러 가지 啓辭와 傳敎를 月日順으로 배열하고 참가한 인원들의 職位, 姓名을 序列에 따라 정리하며, 거래한 各種 文牒들을 種類別로 분류하고, 행사에 소요된 經費와 物目들을 상세히 기록한다. 이러한 기록과 함께 그 행사 중 가장 중요한 場面을 儀軌圖로 그리어 기록과 함께 보관한다.

이 論文의 研究 目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朝鮮時代 宮中服飾은 壬辰倭亂(1592 ~ 1598)과 丙子胡亂(1636 ~ 1637)을 겪고 나서 宮中服飾이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만들면서 어떻게 한국적인 服飾으로 國俗化시켰는지, 또 國末까지 오는 동안 어떻게 變貌했는지에 대하여 考察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服飾史를 立體的으로 研究하기 위하여는 服飾에 관한 각종 기록뿐 아니라 出土服飾의 實物과 더불어 視覺的으로 살펴볼 수 있는 繪畵史料에서 服飾의 着裝 實態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자료를 서로 연결시켜 보다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服飾研究方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즉 服飾史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繪畵史의 研究 方法을 도입시킴으로써 어떻게 繪畵史料를 服飾史料로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길을 열어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미 繪畵史料는 服飾史 硏究에 이용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繪畵史料 自體에 대한 분석없이 그대로 이용하는 데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本論文에서는 繪畵特徵에 대하여 고찰한 후에 儀軌圖에 나타난 服飾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論文의 硏究 範圍는 朝鮮時代의 嘉禮都監儀軌圖와 整理儀軌圖를 대상으로 하여 儀軌圖의 繪畵史的 특징을 살펴본 후에 그에 나타난 服飾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硏究 方法은 주된 硏究 範圍인 朝鮮時代 嘉禮都監儀軌圖와 整理儀軌圖에 나타난 服飾을 이해하기 위하여, 各 儀軌圖의 繪畵 內容과 特徵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서, 그 儀軌圖에 나타난 服飾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儀軌圖에 나타난 服飾을 연구함에 있어서 嘉禮都監儀軌圖 20件 중 仁祖 5年(1627)「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圖」에서부터 英祖 20年(1744)에 거행된「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圖」까지의 10件은 그것을 그리는 繪畵技法이 鉤勒塡彩法으로 표현되다가 차츰 木版彩色法이 섞여져 두 技法이 합해져서 제작되었으므로, 이 10件의 嘉禮를 前半期 嘉禮로 하고, 英祖 35年(1759)에 거행된「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班次圖」에서부터 光武 10年(1906)에 거행된「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班次圖」까지의 10件은 모두 木版彩色法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後期 嘉禮로 하여 各 身分別 服飾을 고찰하고자 한다.〈표 1〉

整理儀軌의 服飾은 正祖代의 服飾으로서 그 시기의 嘉禮都監儀軌에서 고찰될 것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園幸時 착용한 文武百官의 服飾만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嘉禮都監儀軌에 기록된 服飾은 그 構造的인 面에서 볼 때 法服과 의대의 二重性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것을 종합하여 各 服飾別로 그 特徵과 變貌를 분석하고자 한다.

〈表－Ⅰ〉 嘉禮都監儀軌

期	世紀	王朝年	西紀	儀軌名	身分	冊數	班次圖面	班次圖規格 cm	班次圖總長	所藏處
	17	仁祖5年	1627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王世子	1	8面	彩色圖寫 44.5 cm× 35.5 cm	284 cm	奎章閣
	〃	仁祖16〃	1638	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	王	1	8面	彩色圖寫 44.5 cm× 30.7 cm	245.6	〃
前	〃	孝宗2〃	1651	顯宗明聖后嘉禮都監儀軌	王世子	1	12面	彩色圖寫 45.6 cm× 35.4 cm	424.8	〃
半	〃	顯宗12〃	1671	肅宗仁敬后嘉禮都監儀軌	王世子	1	12面	彩色圖寫 47 cm× 35 cm	420	〃
期	〃	肅宗7〃	1681	肅宗仁顯后嘉禮都監儀軌	王	1	14面	彩色圖寫 45.9 cm× 34.5 cm	483	〃
	〃	肅宗22〃	1696	景宗端懿后嘉禮都監儀軌	王世子	1	12面	彩色圖寫 46.3 cm× 33.5 cm	402	〃
	18	肅宗28〃	1702	肅宗仁元后嘉禮都監儀軌	王	1	18面	彩色圖寫 46 cm× 33.6 cm	604.8	〃
	〃	肅宗44〃	1719	景宗宣懿后嘉禮都監儀軌	王世子	1	12面	彩色圖寫 45.3 cm× 33.2 cm	398.4	〃
	〃	英祖3〃	1727	眞宗孝純后嘉禮都監儀軌	王世子	1	12面	彩色圖寫 46.8 cm× 32.7 cm	392.4	〃
	〃	英祖20〃	1744	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	王世子	1	12面	彩色圖寫 44.9 cm× 33.6 cm	403.2	〃
後	〃	英祖35〃	1759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	王	2	50面	彩色圖寫 45.8 cm× 33 cm	1650	〃
半	〃	英祖38〃	1762	正祖孝懿后嘉禮都監儀軌	王世孫	2	18面	彩色圖寫 46.7 cm× 33 cm	594	〃
期	19	純祖2〃	1802	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	王	2	50面	彩色圖寫 46.9 cm× 33.2 cm	1660	〃
	〃	純祖19〃	1819	文祖神貞后嘉禮都監儀軌	王世子	2	52面	彩色圖寫 45.8 cm× 32.4 cm	1684.8	〃
	〃	憲宗3〃	1837	憲宗孝顯后嘉禮都監儀軌	王	2	70面	彩色圖寫 44.6 cm× 31.9 cm	2233	〃
	〃	憲宗10〃	1844	憲宗孝定后嘉禮都監儀軌	王	2	80面	彩色圖寫 46 cm× 31.7 cm	2536	〃
	〃	哲宗2〃	1851	哲宗哲仁后嘉禮都監儀軌	王	2	92面	彩色圖寫 46.3 cm× 32.5 cm	2990	〃
	〃	高宗3〃	1866	高宗明成后嘉禮都監儀軌	王	2	82面	彩色圖寫 45.9 cm× 31 cm	2542	〃
	〃	高宗19〃	1882	純宗純明后嘉禮都監儀軌	王世子	2	70面	彩色圖寫 44.9 cm× 32.4 cm	2268	〃
	20	光武10〃	1906	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	皇太子	2	46面	彩色圖寫 45.3 cm× 32.4 cm	1490.4	〃

Ⅱ. 朝鮮時代 儀軌圖의 繪畵 內容과 特徵

1. 儀軌圖 發達의 絵画史的 背景

朝鮮時代 儀軌圖는 그 당시의 一般 繪畵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嘉禮都監儀軌圖와 整理儀軌圖의 여러 가지 양상을 총괄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색들이 보인다.

嘉禮都監儀軌圖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 배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행사 자체에만 중점을 두어서 그렸는데, 그 繪畵 樣式은 여러 각도로부터 감상자의 입장에서 그린 多角投像으로 표현되었으며, 技法은 鉤勒塡彩法에 木版彩色法이 섞여서 사용되었다. 整理儀軌圖도 嘉禮都監儀軌圖와 마찬가지로 행사를 중점으로 하지만 山水 背景을 넣고 있다. 이것은 서울을 떠나 水原으로 가는 길이 山水가 수려한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繪畵 樣式도 다양하여 같은 각도로 그리는 等角投像이라든가, 혹은 多角投像, 鳥瞰圖, 透視圖 등의 여러 가지 形式을 구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儀軌圖가 모두 17世紀 이후에 製作된 것이고 行事場面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일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儀軌圖들에 보이는 이러한 특징들, 이를테면 행사장면에 역점을 두어 背景을 배제하거나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일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儀軌圖들에 나타난 이러한 特徵들, 즉 행사장면에 역점을 두어 背景을 배제하거나 소극적으로 表現하는 方法, 人物들의 動作을 알아볼 수 있게 그리는 태도, 당시의 건물이나 服飾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점은 당시의 記錄畵로 볼 수 있는 契會圖, 社宴圖 등의 作品들에서 간취할 수 있는 特徵들과 軌를 같이하고 있다. 이 점은 儀軌圖가 宮中行事를 적극적으로 묘사한 전형적인 記錄畵임에 틀림없지만 그밖에 記錄畵를 포함한 一般 繪畵의 變遷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이러한 사실은 朝鮮後期의 儀軌圖들에도 一般 繪畵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西洋畵法이 수용되고 있는 현상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면 嘉禮都監儀軌圖와 整理儀軌圖의 발달을 가능케 한 당시의 繪畵史的 背景과 畵風上의 특징 등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一般 繪畵의 경우 그 시대 구분에 대하여 학자에 따라 意見의 차이가 있다.[1] 朝鮮王朝를 크게 兩分하여 壬辰倭亂 이전까지를 前期로 하고 그 이후를 後期로 본다면, 前期에 해당하는 期間의 儀軌圖는 남아있는 것이 없고 後期에 해당하는 期間의 儀軌圖는 상당히 많은 量이 遺傳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儀軌圖는 宮中의 行事를 畵員에게 명하여 그리게 하는 記錄畵로서 記錄畵의 발달은 이미 三國時代 高句麗 古墳壁畵에 나타나고 있는 行列圖에서 그 起源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安岳三號墳의 行列圖는 약 250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이 그려진 大行列로 인물들이 겹쳐서 空間의 깊이를 나타내어 주고 있다.[2] 高麗時代의 記錄畵는 耆老會圖와 文人契會圖와 같은 형식이 盛行하였다.[3] 이러한 記錄畵의 傳統은 朝鮮時代로 이어져 큰 발전을 보게 되었고, 儀軌圖도 이러한 背景下에서 盛行한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朝鮮時代에 들어와서 제작된 수많은 耆老會圖와 文人契會圖 가운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契會圖들은 1531년 경에 제작된 「讀書堂契會圖」, 1533년 경에 제작된 「中廟朝書筵官賜宴圖」 등인데, 이들 契

1) 朝鮮王朝時代 繪畵의 年代 區分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意見이 있다. 金元龍「韓國美術史」(汎文社, 1973) p. 347에서 二期로 나누고, 李東洲「韓國繪畵小史」(瑞文文庫, 1972) pp. 99～100. 127. 159에서三期로, 安輝濬「韓國繪畵史」(一志社, 1980) pp. 91～92에서는 四期로 나누었는데, 本論文에서는 金元龍博士의 二期區分이 儀軌圖 有無에 적용되며, 一般繪畵와의 關係에서는 安輝濬박사의 四期區分을 적용시켰다. 그러나 嘉禮都監儀軌圖에서는 繪畵技法上의 差異와 「國婚定列」 制定 以前과 以後의 服飾의 差異 때문에 따로 前半期, 後半期로 나누었다.

2) 行列圖가 그려져 있는 高句麗 壁畵古墳으로는 安岳三號墳, 德興里古墳, 樂山里古墳, 修山里古墳, 平壤驛前 壁畵古墳, 安岳一號墳 등이 있는데, 그 筆法은 鉤勒畵法이었으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金完龍「韓國壁畵古墳」(一志社, 1980)과 金完龍「壁畵」「韓國美術全集」4.(同和出版會社, 1973), 蔡秉瑞,「安岳近傍壁畵 古墳發掘圖錄」, (亞細亞研究, VolⅡ, No. 2, 1967), 蔡秉瑞「安岳地方의 壁畵古墳」(白山學報 2號, pp. 54～56) 참조.

3) 安輝濬,「高麗 및 朝鮮王朝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古文化 20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2, p. 8.

軸은 朝鮮初期 安堅派 畵風을 보여주는 山水를 위주로 한 表現으로 契會 場面은 아주 작게 象徵的으로만 다루는 것이 常例였다. 1550년 경부터는 「戶曹郎官契會圖」의 경우에서 보듯이 契會 場面과 背景인 山水가 비슷한 비중으로 표현되게 되었다.[4)]

2. 嘉禮都監儀軌圖의 內容과 特徵

嘉禮都監儀軌圖의 內容은 王이 王妃 집에 가서 親迎儀를 마치고 還宮하는 장면을 그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還宮하여 王妃를 일단 別宮에 모셔놓고, 그날 저녁에 御殿에서 同牢宴을 하게 될 때, 이 同牢宴을 치르기 위하여 別宮에서 御殿으로 侍衛를 받으며 王妃가 가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班次圖에 王의 輦과 王妃의 輦이 있는 것은 親迎儀를 마치고 王이 앞서고 王妃가 뒤에 따라오는 還宮 장면을 그린 것이고, 班次圖에 王妃의 輦만 보이는 것은 王妃가 別宮에서 同牢宴을 하기 위하여 御殿으로 오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장면을 그린 것이든간에 嘉禮都監儀軌班次圖는 긴 行列을 이루는 人物行列圖로 이루어져 있다.

긴 行列의 인물들은 畵面의 中心을 이루는 王과 王妃의 輦을 中心으로 하여 左側面圖, 右側面圖, 後面圖, 左斜面 鳥瞰圖로 그려졌다.

嘉禮行事를 주관하는 使者들인 都提調, 提調, 都廳, 郎廳 등 議政府 大臣들과 扈衛의 중책을 맡은 武官들은 王과 王妃의 輦과 함께 중심부를 이루면서 行列을 先導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물들은 대개 뒤에서 바라본 方向에서 그린 形態로 後面圖로 그려진다.[5)]

王과 王妃를 左右에서 扈衛하면서 가는 鹵簿儀衛들은 王과 王妃의 輦이 있는 중심을 향한 方向으로 左側面圖와 右側面圖로 그려져 있다. 즉 중심에서 볼 때 左右列 모두 중심으로 누운 것 같이 右側列은 右側面圖로 그리고, 左側列은 左側面圖로 그려진다.

王과 王妃가 탄 輦은 鳥瞰圖로 그리는데 그 輦을 메고 가는 轎軍들은 行列 方向에서 볼 때 左側面圖로 그리기 때문에 全畵面이 左側面圖가 우세하며, 右側列은 中心을 향하여 右側面圖로 그렸기 때문에 畵面上에는 거꾸로 그린 것같이 보인다.

이렇게 畵面을 구성한 것은 班次圖를 記錄畵로서 그렸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班次圖를 정확하게 관찰하여 그리고자 한 多角的 視線에서 그린 多角投像으로 表現했기 때문이다. 王과 王妃의 輦이 있는 方向을 중심으로 視点의 基準을 잡아서 前後左右의 視点을 均等하게 이동시켜 遠近法을 무시하고, 오로지 王과 王妃의 輦을 扈衛하고 간다는 目的 意識을 크게 부각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려진 班次圖는 視点의 移動으로 王과 王妃의 중심적 權威를 집약시키고 통일된 視点 아래서 생략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생략시킴으로써 記錄畵로서의 正確性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 前半期 嘉禮都監儀軌班次圖의 內容과 特徵

前半期 嘉禮都監儀軌班次圖는 遠近法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이나 말, 가마 등을 일정한 크기로 중심을 향하여 누운 것같이 표현한 多角投像形式으로 그렸다.

前半期 嘉禮都監儀軌班次圖를 대표할 수 있는 「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班次圖」는 仁祖 16年(1638)에 畵員 李澄, 李起龍, 韓善國,李德益, 金忠豪, 洪敬民, 安孝忠, 車達元, 金垈吉에 의하여 그려졌다.[6)]

8面으로 된 이 班次圖는 모두 各面이 44.5 × 30.7 cm로 총 245.6 cm의 그림이다. 班次圖 후면에 「中宮自別宮詣闕時班次圖」라 題하여 있어, 別宮에서 同牢宴을 치르기 위해 대궐로 들어가는 장면을 그린 班次圖임을 알 수 있다.

이 班次圖의 筆法은 鉤勒塡彩法으로 그렸으며 「昭顯世子嘉禮班次圖」보다 더욱 達筆로 그려졌다. 특히, 여기에 그려진 말들은 그 筆線이 매우 세련되어 生動感을 주고 있다. 李澄, 李起龍, 李德益, 金忠豪 등이 참여하여 그린 「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

---

4) 安輝濬, 「16 世紀 中葉의 契會圖를 통해 본 朝鮮王朝時代 繪畵樣式의 變遷」, 美術資料 18 號,1975, p. 38 .

5) 後面圖는 人物들이 앞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장면을 뒤에서 본 方向에서 그린 그림이므로 背面圖라고도 할 수 있다.

6) 「仁祖莊列后嘉禮都監儀軌」 工匠秩.

軌班次圖」에 나타난 현상은 그들이 참여하여 앞서 그린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班次圖」의 작품현상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두 그림 사이에 작품현상의 차이는 그들 외에 참여한 많은 畵員들의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儀仗期와 儀仗物을 들고 가는 鹵簿儀衛들은 등이 약간 굽은 자세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등이 굽은 자세로 인물을 표현한 것은 畵員 중에 李澄의 표현으로 생각되는데, 國立中央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李澄 筆「煙寺暮鍾圖」를 보면 錫杖을 짚고 다리를 건너고 있는 佛僧을 그린 山水圖로서, 中景의 倒懸의 山形이나 群峰의 묘사에 절류畵風의영향이 나타나 있으나, 전체적인 構圖나 空間 處理, 樹技法 등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安堅派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煙寺墓鍾圖」에 보이는 佛僧과 비슷하게「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班次圖」에보이는 모든 側面圖의 人物을 등이 굽은 老人 같은 인상을 주도록 표현하고 있다.

2) 後半期 嘉禮都監儀軌班次圖의 內容과 特徵

後半期 嘉禮都監儀軌班次圖는 前半期의 班次圖와 비교하여 볼 때 기본적인 班次圖 樣式에서는 큰 變化가 없으나, 技法上으로 볼 때 모두 木版彩色法으로 그려진 것에 差異가 있다.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班次圖」는 英祖 35年인 1759年 畵員 신 한평 外 16인에 의하여 木版彩色法으로 제작되었다.[7]

班次圖의 構成 內容은 크게 나누어 두 부분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앞부분은 王의 행차이고, 뒷부분은 王妃의 행차이다.

後期 班次圖의 특징은 畵面 效果를 효율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木版技法을 사용했기 때문에 人物彫刻이나 彩色 등이 선명하게 표현되었으므로 매우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이러한 畵風은 純祖, 憲宗, 哲宗까지 이어졌는데, 高宗代에 이르러 木版畵가 거칠어지고,「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班次圖」는 매우 경직되었다.

3. 整理儀軌圖의 內容과 特徵

「園幸乙卯整理儀軌圖」는 正祖 19年인 乙卯年(1795)에 거행된 각종 행사를 전부 정리하여 그린 그림이다. 이 해는 正祖의 生父인 莊獻世子와 慈殿인 惠慶宮의 周甲年이다. 莊獻世子의 誕辰日은 1月 21日이고, 慈殿의 誕辰日은 6月 18日이기 때문에 각종 祝賀行事를 그 날짜 안에 행하고, 모두 정리하여 儀軌圖를 만들었다.「園幸乙卯整理儀軌圖」는 여러 가지 행사의 장면을 표현해 주는 그림으로서, 이 整理儀軌圖는 畵員 金得臣, 李寅文,張漢宗, 李命奎, 尹碩根, 許寔, 崔得賢에 의하여 그려진 것이 확실하다.[8]「園幸乙卯整理儀軌圖」卷五의 賞典條에 보면 進饌圖屛進上 후에 그들이 施賞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9]

畵員 金得臣, 李寅文, 張漢宗 등 7인에 의하여 그려진「園幸乙卯整理儀軌圖」는 그 내용이 人物畵가 主流를 이루면서 山水畵, 宮闕圖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風俗畵的인 記錄畵이다.

12회에 달하는 正祖의 水原 顯隆園 展拜는 11년 동안 거행하면서 늘 正祖만이 혼자서 많은 대신들과 鹵簿儀衛들의 扈衛를 받으며 다녀오다가 부모님의 周甲年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慈宮을 모시고 園幸하여 顯隆園에 展拜하였으며, 효성이 극진한 正祖는 慈宮의 건강을 염려하여 그 후 다시는 慈宮을 모시고 園幸한 일이 없다.

「園幸乙卯整理儀軌圖」는 華城行宮圖로부터 시작하여 弘化門賜米圖에 이르기까지 川面에 달하는 긴 그림이다. 이와 같이 긴「園幸乙卯整理儀軌圖」를 살펴보면 내용에 따라 그 種類를 분류할 수 있는데, 그 種類는 園幸路 및 行宮에 관한 그림, 宴會에 관한 그림, 여러 가지 행사에 관한 그림, 班次圖에 관한 그림, 여러가지 道具에 관한 그림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分類는 〈表2〉와 같다.

1) 華城行宮圖

正祖가 顯隆園에 展拜하러 華城에 와서 머물던 宮이 華城行宮이기 때문에「園幸乙卯整理儀軌圖」첫 번째 그림이「華城行宮圖」이다. 乙卯年의 여러 가지 행사가 이 華城行宮에서 많이 행해졌다.

---

7)「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工匠秩.
8)「園幸乙卯整理儀軌」卷之五, 慈宮頒下各站賞典.
9) 金得臣이 整理儀軌를 그린 것은 正祖 19年 乙卯年인 1795年이므로 7年 후인 1802年에「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班次圖」를 그렸다.

〈表 2〉園幸乙卯整理儀軌圖

種 類	儀 軌 圖 名	畵面數	行 禮 日	內 容
行宮圖	華 城 行 宮 圖	1 面		
進饌圖	奉壽堂進饌圖, 獻仙兆, 夢金尺, 荷皇恩, 抛毬樂, 舞鼓, 牙拍, 響鈸, 鶴舞, 蓮花臺, 壽延長, 處容舞, 尖袖舞, 船遊樂, 劍舞, 延禧堂進饌圖	17面	奉壽堂進饌宴은 1795 年 윤 2 月 13 日에 거행함. 延禧堂進饌宴은 1795 年 6 月 18 日 거행함.	水原의 奉壽堂에서 베풀어진 進饌宴에서 여러가지 춤과 樂을 作함. 漢陽의 延禧堂에서 進饌宴 드림.
行事圖	洛南軒養老宴圖, 謁聖圖, 放榜圖, 西將臺成操圖, 得中亭御射圖, 新豊樓賜米圖, 弘化門賜米圖	7 面	1975 年 윤 2 月 11 日부터 1975 年 6 月 18 日까지 거행함.	乙卯年에 華城과 漢陽에서 慈堂周甲祝賀를 위한 行事.
班次圖	軍牢에서부터 左司後哨軍三隊平行에 이르는 班次圖	63面	1795 年 윤 2 月 9 日~윤 2 月 16日	華城으로 가고 오는 장면.
器用圖	綵花圖, 器用圖, 服飾圖, 駕轎圖	10面	1795年 윤2月 9日~6月18日까지	行禮에 필요한 꽃, 용구, 복식, 가교 그림.
舟橋圖	舟橋圖	2 面	1795 年 2月 13日~윤 2月 17日	舟橋始役日로부터 舟橋撤排日까지.

「華城行宮圖」는 木版畵로 채색되지 않은 것이 있고,[10] 동일한 木版本에 채색을 가한 木版彩色畵도 있다.

2) 奉壽堂進饌圖

奉壽堂進饌宴은 生父인 莊獻世子와 慈堂인 惠慶宮의 周甲年 잔치이고, 延禧堂 進饌宴은 惠慶宮洪氏의 回甲日 잔치이므로 그를 축하하기 위하여 獻仙桃, 夢金尺, 荷皇恩, 抛毬樂, 舞鼓, 牙拍, 響鈸, 鶴舞, 蓮花臺, 壽延長, 處容舞, 尖袖舞, 船遊樂, 劍舞의 춤과 樂이 베풀어졌다.

「奉壽堂進饌圖」는 木版畵로 等角投像으로 표현되었다.

3) 行事圖

行事圖에는 華城에서 거행된 「洛南軒養老宴圖」, 「謁聖圖」, 「放榜圖」, 「西將臺城操圖」, 「得中亭御射圖」, 「新豊樓賜米圖」가 있고, 漢陽에서 거행된 「弘化門賜米圖」가 있다.

「洛南軒養老宴圖」, 「謁聖圖」, 「放榜圖」는 木版畵로 정면에서 그린 等角投像이다.

「西將臺城操圖」는 木版畵로 정면에서 그린 多角投像이다. 華城의 성곽이 타원형 모양으로 둥글게 그려졌는데, 西將臺는 遠景으로 城의 上端에 정면으로 그려놓고, 산 밑에 宮城과 民家들을 표현했다.

「得中亭御射圖」는 木版畵로 多角投像이다.

「新豊樓賜米圖」, 「弘化門賜米圖」는 木版畵로 정면에서 그린 等角投像이다.

4) 班次圖

整理儀軌班次圖는 乙卯年(1795)에 正祖가 華城에 慈宮인 惠慶宮을 모시고 다녀온 행차를 그린 班次圖로서 「園幸乙卯整理儀軌」는 8卷 중 首卷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고, 木版彩色班次圖는 奎章閣本과 同一本에 채색된 것으로 個人 所藏이다.[11] 이 「園幸乙卯整理儀軌班次圖」는 배경없이 遠近法을 무시하고 視線을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하게 이동시키면서 모든 人物을 같은 크기로 그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左側面圖 一面으로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軍牢들이나 巡視들이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몸을 앞쪽으로 돌리기도 하여 後斜面圖, 左斜面圖, 前面圖로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5) 器用圖

「器用圖」는 逆遠近法으로 그렸다. 이 整理儀軌

10) 「園辛乙卯整理儀軌」 首卷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木版畵로 찍은 후 彩色하지 않았으며, 同一木版本에 彩色된 것이 個人 所藏으로 있는데 그 일부분이 「韓國의 美」 21 卷 檀園 金弘道 參考圖版에 수록되어 있다.

11) 「韓國의 美」, 21 卷 〈檀園 金弘道〉, 中央日報社, 圖版 134 ~ 139 參照.

에는 器用圖 외에 이 때 필요한 綵花圖, 服飾圖, 駕轎圖가 그려져 있는데, 服飾圖는 女僧과 童妓의 服飾을 圖樣으로 그렸다.

6) 舟橋圖

「舟橋圖」도 역시 木版畵로 刻線이 매우 가늘고 세밀하여 뱃전에 못자리와 다리 위에 홍살문 기둥까지 정밀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다리의 構圖는 右上端에서 左下端에 對角線 방향으로 배치하여, 透視圖法으로 표현하였다.

Ⅲ. 朝鮮時代 儀軌圖에 나타난 宮中服飾의 構造와 特徵 分析

朝鮮時代 儀軌의 기록과 儀軌圖에 나타난 服飾은 그 構造的인 면에서 이중성을 띠고 있으니 法服과 衣裳의 구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構造에 대하여 살펴보고, 儀軌에 나오는 王族服飾의 실제와 그 變貌에 대하여 各 衣服別로 分設하고자 한다.

1. 儀軌圖에 나타난 宮中服飾의 이중성

儀軌 服飾이 法服과 衣裳로 나뉘어진 것은 後半期 嘉禮都監儀軌에 속하는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1795)에서부터 「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1906)까지 10例의 嘉禮에서였으며, 前半期 嘉禮都監儀軌에 속하는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1627)에서부터 「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1744) 까지 10例의 嘉禮에서는 嘉禮時 착용하는 모든 服飾을 의대에 포함시켜 기록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 法服이라는 의미는 嘉禮를 거행할 때 大禮에 입는 儀軌服을 이르는 것으로서, 燕居時의 平常服에 대한 상대적인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英祖 25年(1749)에 「國婚定例」에서 制定된 후 10年 뒤에 치러진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에서부터 의대와 구별시켜 法服을 따로 위에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法服은 六禮時의 儀禮服을 의미하며, 의대는 燕居時의 平常服을 뜻하고 아울러 法服의 속에 입는 옷이다. 前半期 嘉禮都監儀軌에서 嘉禮時 착용하는 모든 服飾을 의대에 포함시켰다고 해도 기록상의 구분만 되어 있지 않는 것이며 내용상으로는 儀禮服과 平常服이 구별되어 있다. 이에 法服으로 입혀졌던 服飾과 의대로 입혀졌던 服飾을 儀軌 記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法服

嘉禮의 儀式인 六禮를 행할 때 입는 法服은 王의 경우와 王世子, 王世孫, 皇太子, 王妃, 世子嬪, 世孫嬪, 皇太子妃에 차이가 있다.

- 王 嘉禮時 王의 法服을 보면,
  納采에 冕服을, 納徵에 遠遊冠·絳紗袍를, 告期에 면복을, 冊妃에 遠遊冠·絳袍袍를, 親迎에 면복을, 同牢에 면복을 입고, 끝나면 翼善冠에 衮龍袍로 갈아 입는다.
- 王世子 嘉禮時 王과 王世子의 法服을 보면, 納采에 王과 王世子 모두 면복을, 納徵에 王과 王世子 모두 遠遊冠·絳紗袍를, 告期에 王과 王世子 모두 면복을, 冊嬪에 王은 遠遊冠에 絳紗袍를, 王世子는 翼善冠에 衮龍袍를, 親迎에 臨軒醮戒儀에는 王과 王世子 모두 면복을, 嬪의 집에 王世子가 親迎하러 갈 때도 王世子가 면복을 입으며, 同牢에 王世子가 遠遊冠·絳糸袍를 입고, 끝나면 翼善冠에 衮龍袍로 갈아 입는다.
- 王世孫 嘉禮時 王과 王世孫의 法服은 王世子와 같다.
- 皇太子 嘉禮時 皇帝와 皇太子 모두 六禮에 면복을 입는다.
- 王 嘉禮時 王妃의 法服을 보면,
  受納采에는 王妃는 나타나지 않으며, 受納徵에도 王妃는 나타나지 않고, 受告期에도 王妃는 나타나지 않는다. 妃受冊에, 親迎에, 同牢에 翟衣를 입는다.
- 王世子 嘉禮時 世子嬪의 法服은 王妃와 같고, 王世孫 嘉禮時 世孫嬪의 法服도 王妃와 같으며, 皇太子 嘉禮時 皇太子妃의 法服도 王妃와 같다.

2) 衣裳

嘉禮의 六禮를 행할 때 法服의 속에 입거나, 嘉禮를 치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平居 燕食 때에 입는 衣裳는 각 신분별로 차이가 있다.

- 王 嘉禮時 王의 의대를 보면 裹肚, 액주음, 衫兒, 天翼, 把持이다.
- 王世子 嘉禮時 王世子의 의대를 보면 加文刺, 天翼, 액주음, 裹肚, 衫兒, 把持이다.
  王世孫 嘉禮時 王世孫의 의대를 보면, 天翼, 이두, 액주음, 衫兒, 把持이다.
- 皇太子 嘉禮時 皇太子의 의대를 보면, 天翼

裏肚, 액주음,衫兒, 把持이다.

- 王 嘉禮時 王妃의 의대는 露衣, 長衫胡袖, 赤古里, 赤勿, 말군, 濶衫兒, 景衣, 盖襖, 串衣 등이다.
- 王世子 嘉禮時 王世子嬪의 의대는 露衣, 長衫, 濶汗衫, 赤古里, 胡袖, 衫兒, 말군 등이다.
- 王世孫 嘉禮時 王世孫嬪의 의대는 露衣, 圓衫, 겹오, 串衣, 赤古里, 濶衫兒, 衫兒, 赤勿이다.
- 皇太子 嘉禮時 皇太子妃의 의대는 露衣, 鞠衣, 襖子, 盖襖, 景衣, 串衣, 赤古里,長衫, 汗衫, 衫兒, 赤勿 등이다.

2. 儀軌圖에 나타난 宮中 服飾의 特徵과 変貌 分析

1)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男子服飾의 特徵과 変貌 分析

1) 冕服

王 면복의 衣色은 「國朝 禮儀序例」에 玄繪으로 되어 있고, 昌德宮에 있는 九章服은 玄色 紗이다. 그런데 「宣祖國葬都監儀軌」 服玩은 青綃이며 「英祖國葬都監儀軌」 服玩은 鴉青 熱綃이다.

王世子 면복의 衣色은 後半期 嘉禮都監儀軌에 속하는 景宗 선의후 嘉禮時에 鴉青 熱綃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王世子의 면복 色은 鴉青色으로 생각된다. 王世孫의 면복도 鴉青色으로 생각되며, 皇帝의 衮衣의 色은 玄色이고, 皇太子의 衮衣도 玄色이다.

면복의 章紋을 보면 王면복은 九章紋으로 衣에 五章을 그리고, 裳에 四章을 수 놓는다. 王世子의 章紋은 七章紋으로, 衣에 三章을 그리고, 裳에 二章을 수 놓는다. 王世孫의 章紋은 五章紋으로, 衣에 三章을 그리고, 裳에 二章을 수 놓는다. 皇帝의 면복은 二章紋이었고, 皇太子의 면복은 九章紋이었다.

王 면복의 裏衣인 中單은 白繪으로 되어 있고 깃은 青色으로 대어 거기에 黼紋 11개를 그린다. 「英祖國葬都監儀軌」의 中單은 白熟綃로 되어 있다. 그런데 昌德宮 所藏 高宗의 九章服에 中單은 青紗이며, 깃, 도련, 袖口에 黑紗로 선을 둘렀는데 깃에 黼紋은 11個를 金箔하였고, 王世子 冕服의 中單은 白繪으로 만들고 黼紋이 9개이다.

王 면류관의 旒는 九旒로 九旒면류관이다. 王世子 면류관은 八旒면류관이며, 王世孫은 칠류면류관이다.

皇帝의 면류관은 十二旒면류관이다. 高宗 34年(1897) 8月에 國號를 大韓이라 하고 10月 12日에 皇帝位에 올라 年號를 光武라 고치고, 면복의 冠을 中國의 皇帝와 같이 二旒 면류관을 썼다.

皇太子 면류관은 九旒면류관이다.

昌德宮 所藏의 高宗 면복의 特徵은 무를 대지 않고도 앞길의 폭을 밑에서 넓게 재단하여 무를 댄 것과 같은 여유를 갖도록 만든 것이다.

2) 遠遊冠 絳紗袍

遠遊冠에 絳紗袍는 면복 다음으로 귀하게 여긴 法服의 한 가지로서 王의 朝服에 해당하는 옷이다. 絳紗袍의 色은 絳色이다. 絳羅나 絳紗 혹은 紅緞을 사용하였다.

絳紗袍의 冠은 遠遊冠으로 「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에서부터 「高宗明成后嘉禮都監儀軌」까지 9件의 嘉禮에 絳紗袍를 보면 전부 遠遊冠을 쓰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 赤纓, 赤舃이 딸린다. 그런데 國末 高宗은 皇帝位에 오른 후 遠遊冠 대신 通天冠을 썼다.

3) 翼善冠 衮龍袍

王의 嘉禮時에는 衮龍袍가 보이지 않고, 王世子, 王世孫 嘉禮時에만 法服에 들어 있다.

王의 衮龍袍는 大紅色이고 前後左右에 金五爪圓龍補를 단다. 王世子의 衮龍袍는 黑色이며, 前後左右에 金 爪圓龍補를 단다. 王世孫의 衮龍袍는 黑色이며, 前後에만 金三爪方龍補를 단다.

高宗이 皇帝位에 오르자 黃色 衮龍袍을 입었다.

衮龍袍의 形態的 特徵은 목둘레가 둥근 團領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團領에 補를 달지 않으면 文武官의 公服과 形態가 같으며 거기에 胸背를 달면 常服이 된다.

4) 裏肚

裏肚는 白吐紬 壹匹로 만드는 白色의 袍類로서, 內拱에 白紬 壹匹과 中綿子가 1근~2근이 들어가므로 흰색의 솜 둔 袍이다.

裏肚는 王과 王世子, 皇太子 의대에는 있으나 王世孫 의대에는 보이지 않는다.

5) 액주음

王의 액주음은 嘉禮 衣襨에 2벌씩 들어 있는데, 한 벌은 白吐紬 一匹이, 또 한 벌은 白綿布 一匹이 드는 白色 袍로, 內拱 白紬 一匹과 中綿子 1근이 들어가는 솜 둔 袍이다. 王嘉禮 9年에 모

두 2벌씩 들어 있으므로 가장 자주 입었던 옷이라는 점이 特徵이다.

王世子의 액주음은 紫色과 白色이 있는데, 昭顯世子의 衣襨에 액주음은 紫的十一升吐紬四十五尺에 內拱 藍鼎紬四十七 尺九寸에 中綿子 1근이 들어가는 솜 둔 紫色 袍이다. 文祖神貞后, 純宗順明后嘉禮時 衣襨에는 액주음이 白色이 되어 王과 같다.

王世孫의 액주음도 白吐紬, 白綿布로 2벌이고, 皇太子의 액주음도 白吐紬,白綿布로 2벌이 들어 있어서 이 액주음이 王이나 王世子, 世孫, 皇太子 嘉禮時에 모두 다 2벌씩 들어 있으므로 가장 자주 입는 옷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액주음 形態의 특징은 양옆구리 밑에 주름이 잡혀 있는 부분적인 衣裳連衣라는 점이다. 따라서 입기에 편리하였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嘉禮 20건에 모두 2벌씩 들어갔다고 생각된다. 출토된 服飾에서 볼 때 겉고름 길이가 112 cm, 밑고름 길이가 80 cm로, 옷 길이 102 cm보다 훨씬 고름이 긴 것으로 보아 겉고름으로 허리를 한 번 둘러서 매어 입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입으면 帶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禮服의 裏衣로 입기에 아주 간편했을 것이므로 이 점이 또한 액주음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6) 天翼

天翼은 王과 王世子가 衮龍袍를 입을 때 그 속받침 옷으로도 입었으며, 燕居時 겉옷으로도 입었고, 戎時에는 戰笠과 함께 戎服으로 입었다. 또한 臣下들도 입던, 활동하기 편리한 옷이다.

16世紀 末 壬辰倭亂(1592～1598) 당시의 天翼은 소매가 좁은 牢袖形의 天翼인데, 17世紀 初의 天翼은 소매 배래가 곡선으로 변하면서도 소매통은 계속 좁다. 18世紀 初의 天翼은 소매가 매우 넓은 두리소매로 변하는데 소매 끝에 袖口도 일직선으로 직각되게 만들어 時代에 따른 天翼의 形態 變化를 볼 수 있다.

7) 加文刺

加文刺는 王의 衣襨에는 없으며 王世子의 衣襨에만 들어 있는 옷으로 항상 衮龍袍 밑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衮龍袍의 속에 받혀 입는 옷으로 보이며, 王世子와 妃父만 입었고, 모두 大紅色의 雲紋匹緞으로 만들었다. 加文刺에 있어서 매우 특징적인 사실은 後半期 嘉禮인 文宗神宗后와 純宗純明后 嘉禮儀軌에는 法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加文刺는 더그레로 생각되며, 더그레는 號衣를 말하는 것인데, 같은 더그레라도 王世子와 같이 높은 신분이 입을 때는 加文刺로 쓰고 軍士나 馬上才軍이 입을 때는 號衣라고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8) 衫兒

嘉禮都監儀軌에 보이는 男子 衫兒는 王의 것에서부터 妃父의 衫兒에 이르기까지 모두 白色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王과 王世子, 王世孫, 皇太子의 衫兒는 前半期·後半期에 모두 白鼎紬 一匹이 드는데 비하여 妃父의 衫兒는 前期에 二十一尺이 들고, 後期에 一匹이 들어 前期에는 크기가 작았던 衫兒가 後期에는 王의 衫兒와 크기가 같아졌음을 알 수 있다.

9) 把持

嘉禮都監에 보이는 男子 把持에는 襦把持와 單把持가 있는데 모두 다 白色이다. 王의 襦把持는 白吐紬 壹匹이고, 單把持는 白鼎紬 壹匹이 드는데, 王世子의 把持는 前期에 白吐紬 二十五尺이 들어 王의 把持보다 적은 바지였는데 後期에는 一匹이 들어 王과 같은 크기가 되었다.

2)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女子服飾의 特徵과 変貌分析

(1) 翟衣

翟衣는 嘉禮時 冊妃, 新迎, 同牢에 입는 法服이며, 王의 면복에 해당하는 大禮服으로서 文宗 即位年(1450年)에 明으로부터 賜與받은 大衫은 그 이후 仁祖莊烈后 嘉禮時에 內製造로 만들면서 國俗化해갔는데 英祖朝에는 더욱 民族意識이 높아져서 翟衣를 우리 나라 式으로 國俗化시켰다.

王妃의 翟衣 色은 大紅色으로 王妃 嘉禮 9年에 모두 大紅色이다. 王世子嬪의 翟衣는 嘉禮都監儀軌에서는 9건 모두 鴉青色인데, 「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서는 黑色으로 되어 있어 記錄間에 相異點이 나타나고 있다. 王世孫嬪의 翟衣는 鴉青色이고, 皇太子妃의 翟衣는 深青色이다.

翟衣의 紋樣은 仁祖莊烈后 翟衣에는 五彩畵鳳齊背를 4개(1쌍) 달고 그 아래로 雙雲鳳圓紋 36개를 그렸는데, 「國朝續五禮儀補序例」의 翟衣에는 金繡五爪圓龍補 1쌍을 달며, 繡圓翟 51개를 수 놓아 달게 되어 있고, 霞帔에 雲霞 28, 翟文 26개

를 金繪하며, 裳에 龍紋을 織金한다.

翟衣의 變貌와 特徵은 高麗 恭愍王時 賜與 翟衣는 青質繡九等인데, 朝鮮初 文宗代 賜與 翟衣는 大紅色 大衫이었고, 仁祖代에 國造 翟衣도 大紅色 大衫이었는데, 英祖代에 가서도 大紅色 翟衣가 國俗으로 만들어졌다. 國末 尹皇后 翟衣는 深青色에 翟衣 12等으로 中國 皇后와 같게 입었는데, 이는 大韓帝國 칭제에 따른 身分 表現를 하기 위함이었다.

(2) 露衣

露衣는 翟衣 다음으로 높은 禮服으로서, 매우 화려한 袍이다.

王妃 露衣는 大紅色 匹緞이며 여기에 藍色 匹緞의 荅袖를 단 후 그 위에 雙雲鳳圓紋을 315개 付金한다. 帶는 紫色이며 金線을 두른다. 그리고 여기에 胸背 2쌍이 달리는데, 胸背 1쌍은 2개이므로 전부 4개이니까 補一雙을 다는 것이다.

王世子嬪의 露衣는 大紅色 匹緞 23尺 6寸에 藍色 荅袖를 단 후 金圓紋을 付金하는데, 모양은 王妃의 露衣와 같으나 전체적인 크기가 작은 것뿐이다.

王世孫嬪의 露衣는 王世子嬪의 露衣와 같으나 다만 大紅色 匹緞이 아닌 大紅色 鄕織인 것이 차이가 있다.

皇太子妃의 露衣는 王妃의 露衣와 같다.

(3) 長衫

長衫은 妃·嬪을 비롯하여 尙宮 內人이 입었던 禮服이다. 그 종류는 흉배겹장삼 겹장삼과 單長衫, 洗手長衫이 있었고, 그 중 胸背를 단 흉배겹장삼과 겹장삼은 妃·嬪만이 착용했던 것으로 大紅色에 白色 荅袖와 同正이 달렸다. 尙宮의 長衫은 單長衫으로 藍 荅袖와 白色 동정이 달리고 妃·嬪의 경우와는 달리 匹緞이 아닌 紗로 만들었다. 侍女 乳母의 長衫은 黑苧布로 荅袖가 없으며, 騎行內人의 장삼 역시 苧로 荅袖가 없으며, 色은 紅色과 黃色이 사용되었다.

(4) 胡袖

歷代 儀軌에 나타난 胡袖는 妃·嬪의 衣襨에만 기록이 있으며, 色은 紫, 草綠 2가지가 있었다. 王妃의 胡袖는 紫色이고, 王世子嬪의 것은 紫色 胡袖와 紫色깃을 단 軟草綠 胡袖의 2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後半期 儀軌에서는 王世子嬪도 紫色 胡袖만을 착용하고 있다.

(5) 圓衫

圓衫은 王妃 衣襨에는 없고 王世子嬪과 王世孫嬪 衣襨에만 들어 있다.

王世孫嬪 圓衫은 草綠色으로 雲紋匹緞 35尺에 內拱 목홍초 20尺이 들어가는 옷이다.

王世孫嬪 圓衫은 草綠色인데 廣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皇太子妃의 衣襨에는 圓衫이 보이지 않으며 尙宮이나 內人의 衣襨에도 없다.

(6) 割衣

儀軌의 기록으로 볼 때, 割衣는 妃母와 侍女·乳母의 服飾에 나타나며, 妃母의 割衣는 鴉青 雲紋大緞으로 袖口에 藍色 초의 荅袖를 달고 깃에는 백초 동정을 단 禮服의 한 종류이다. 侍女와 乳母의 割衣는 초로 만들었으며 荅袖의 衣次記錄이 없으므로 荅袖를 달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7) 赤古里

歷代 儀軌에 나타난 赤古里는 紫, 草綠, 藍色이 사용되었고 紫色은 王妃에게만 허용되어 귀한 색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赤古里의 종류에는 襦赤古里, 겹저고리, 短赤古里가 있으며, 短赤古里는 그 衣次로 보아 別色의 회장이 달린 짧은 저고리로 여겨진다. 襦赤古里와 겹저고리는 臀部를 덮을 정도의 긴 저고리로 襦赤古里는 솜을 둔 것이며, 겹저고리는 겹이나 솜을 둔 경우도 있다. 儀軌圖에 보이는 步行內人들의 赤古里는 短赤古里 아닌 襦·겹저고리로 추측되며, 이러한 赤古里들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길이가 길어지고 양옆선이 깊게 트이게 되었다.

(8) 濶衫兒

濶衫兒, 衫兒, 濶汗衫兒는 白色의 속옷으로 王妃 이하 內人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자의 衣襨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 濶衫兒類의 衣服들은 소매가 긴 속옷으로 저고리 아래 입었다고 생각되며 홑으로 되어 있다. 衫兒는 前半期 儀軌에서는 濶汗衫보다 큰 옷으로 보이나 점차 옷감의 所要量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치수가 작아져 濶汗衫과 같아졌다.

(9) 赤勹

赤勹에는 襦, 袂, 單의 종류가 있으나 前半期 儀軌에는 그 구별이 명확치 않고 홑겹의 長赤勹는 尙宮·內人의 赤勹中 기록되어 있다. 치마의

감은 妃·嬪은 匹緞을, 尙宮·內人은 紬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色은 大紅, 紫, 藍色 등이 있었으나 紫色이나 大紅은 妃嬪에게만 사용되고 尙宮, 內人은 藍, 鴉靑을 주로 사용하되 紅이나 黃色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⑽ 말군

말군은 步行內人과 本宅內人을 제외한 儀軌에 기록된 모든 女人이 착용한 의복이다.

妃嬪은 前半期儀軌에서만 말군의 착용이 보이며 尙宮·內人은 國末까지 말군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整理儀軌에 나타난 文武百官服의 特徵分析

(1) 戎服

戎服은 戎時에 王을 비롯하여 文武百官이 모두 입는 것으로서 整理儀軌에 보면 華城 園幸時 王을 위시한 모든 文武百官이 다 입었다. 융복을 갖추어 입는 것을 具戎服이라 하며 戎服을 構成하는 것은 天翼과 笠, 廣多會, 黑靴子이다.

整理儀軌班次圖에는 주로 높은 品階의 文武官인 총리대신, 整理使守御使, 提調, 副提調 등이 具戎服을 하였다. 戎服인 天翼은 여기에서 紅色이 가장 많이 보이고 藍色 廣多會를 띠었는데, 靑天翼도 보이며 이 때는 紅廣帶를 띠었다.

(2) 軍服

軍服은 軍人들이 입는 옷으로서 軍服을 갖추어 입는 것을 具軍服이라 한다. 軍服의 構成은 狹袖袍, 戰服, 戰笠, 戰帶, 黑靴子이다.

狹袖袍는 길과 다른 色의 동을 달므로 동다리라고도 하며 좁은 소매이기 때문에 狹袖라고도 부른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藍色이나 靑色의 狹袖袍이다.

Ⅳ. 結論

儀軌圖에 나타난 服飾을 고찰하기에 앞서서 服飾 着用의 背景을 살펴보기 위하여 儀軌圖의 繪畵內容, 特徵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嘉禮都監儀軌圖의 繪畵內容과 그 特徵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班次圖 20件을 前半期와 後半期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前半期 嘉禮都監儀軌圖의 繪畵 樣式은 遠近法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각적인 시선에서 보아 그린 多角投像 樣式이다. 그래서 左側列은 左側에서 본 방향에서 그렸기 때문에 左側面圖로, 右側列은 右側 방향에서 그렸기 때문에 右則面圖로, 中央에 가는 사람들은 뒤에서 본 方向에서 그렸기 때문에 後面圖로 그렸으며, 輿와 輦은 左前前方 上空에서 본 각도로 그렸기 때문에 左斜面 鳥瞰圖形式으로 표현되었는데, 그 輿와 輦을 메고 가는 轎軍들은 모든 左側面圖로 그렸기 때문에 畵面全體的으로 본다면 左側面圖가 가장 우세하며, 따라서 右側面圖로 그려진 인물들이나 말, 儀仗旗 등은 감상자들에게는 거꾸로 보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다각적인 시선의 방향에서 보고 그린 그림인 多角投像의 繪畵 樣式은 嘉禮都監儀軌班次圖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後半期 嘉禮都監儀軌圖의 繪畵 技法은 완전한 木版彩色法으로 제작되었는데,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班次圖」에서부터 純祖純元后, 憲宗孝顯孝定后, 哲宗哲仁后嘉禮都監儀軌班次圖까지는 班次圖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과 말 등을 정교하게 조각하여 木版畵를 성의있게 하였다.

整理儀軌圖의 繪畵的 特徵을 보면 華城行宮圖와 奉壽堂進饌圖, 謁聖圖, 放榜圖 등은 같은 각도에서 그린 等角投像으로 그렸으며, 西將臺城操圖, 得中亭御射圖 등은 여러 각도에서 그린 多角投像으로 그렸다.

儀軌圖에 나타난 服飾 硏究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壬辰倭亂(1592～1598)과 丙子胡亂(1636～1637)을 겪고 나서 宮中의 服飾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들게 되는데, 이 때 兩亂을 겪고 난 후 우리 민족의 민족의식이 높아져서 새로운 國造服飾에 민족적인 의식이 들어간 國俗化된 服飾을 만들었다. 宮中服飾인 王의 면복이나 遠遊冠 絳紗袍라던가 王妃의 면의는 원래 中國으로부터 賜與받은 服飾이었는데, 兩亂 後 明이 사라지고 淸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淸의 服制를 따르지 않고, 明의 遺制를 지키면서 여기에 우리 민족의 얼을 담아 우리式의 宮中服飾으로 國俗化시켰고 이러한 경향이 國末에까지 계속되고 있다.

둘째로 服飾史를 硏究하는 데 있어서 服飾에 대한 記錄이나 出土遺物의 형태만 가지고는 着裝상태에 대한 확실한 服飾 形態를 알 수 없기 때문에 繪畵에 그려진 人物畵를 통하여 그 인물이 입고 있는 着裝 상태의 服飾을 살펴보아야만

완전한 服飾史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本 論文에서는 이러한 입체적인 연결 방식의 연구를 하기 위하여 먼저 繪畵 自禮에 대한 樣式과 技法 등의 特徵을 考察하고 나서, 이러한 그림에 대하여 服飾史 研究 資料로 활용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시도해 본 것인데, 結果的으로 볼 때 이와 같이 樣式과 技法이 分析된 繪畵史料를 服飾史料로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UI-GUE DO and the costumes of the Royale Family

This dissertation is a study of the costume of the Yi dynasty by means of an investigation of the Ka-rae-do-gam-Eui-gue Do(嘉禮都監儀軌圖 : a collection of paintings of the royal wedding ceremonies and processions issued by the royal court) and the Jung-ri Eui-gue Do(整理儀軌圖 : a collection of a series of paintings showing the whole process of the royal courtesies and ceremonies on the occasion of the king's visit to Hyun-yoong Won in Hwa-sung in 1975年).

The Yi dynasty period is roughly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eriod extends from 1392, in which the reign of the dynasty started, to 1600, when Imjin Waeran(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ended ; the second period lasts from 1600 to the last day of the dynasty in 1910. Of the "Eui-gue Do"(儀軌圖:paintings of the royal ceremonies) which were made in the first period of the dynasty, there is no extant example, the reference to which is found only in records. However, the examples of the "Eui-gue Do" belonging to the second period remain abundant in number, together with the detailed accounts about them.

The followings are the conclusions deduced from this study, which tries to illuminate the pictori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traits of costume manifested in the above-mentioned two groups of paintings.

Most of the costume seen in the Ka-rae-do-gam Eui-gue and the Jung-ri Eui-gue were not clad in accordance with the wearer's individual desire or taste, but in strict conformity with the norm and sense of order in the society based on the Cosfucian political and ethical principles.